

잇단 사고 미화원들의 한숨소리 들리나요

광주에서 50대 환경미화원이 작업 중 쓰레기수거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또다시 발생했다.

지난 16일 후진하던 쓰레기수거차에 부딪혀 50대 환경미화원의 목숨을 앗아간 사망한 사고가 난 지 13일 만이다. 광주시가 지난 28일 환경미화원 사망사고에 따른 후속대책안을 발표한 지 단 하루 만에 유사한 사고가 재발했다.

환경미화원의 열악한 작업환경 등이 두 명의 소중한 명(命)을 빼앗아 간 점을 감안하면 이들의 처우 개선 없인 유사 사고는 끊임없이 반복될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29일 오후 12시15분께 광주시 남구 양과동 광주환경공단 광역위생매립장 안에서 서구청 소속 환경미화원 노모(57)씨의 신체 일부가 쓰레기수거차 화물칸 덮개에 끼었다.

철재로 된 이 덮개는 수거한 각종 쓰레기가 적재함 바깥으로 쏟아지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노씨는 이날 서구 화정·농성동 주택가 등지에서 생활쓰레기를 수거하고 해당 매립장에 이를 버린 뒤 쓰레기수거차 적재함에 위몸을 넣은 채 청소하던 중 이 같은 변

**후진 쓰레기수거차에 치여 숨지고
근로환경 개선 대책 발표 하루만에
화물칸 덮개 닫히며 머리 끼여 사망
구청 ‘사고시 대행업체 책임’ 논란
사고 재발 방지할 근본대책 세워야**



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부경찰은 동료 문모(47)씨가 쓰레기수거차 뒤쪽에 설치된 적재함에서 작업하던 노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적재함 덮개를 작동해 사고를 낸 것이 아닌가 보고 정확한 사인을 조사 중이다.

앞서 지난 16일 오전 6시40분께 남구 노대동 호수공원 주변 도로에서 환경미화원 서모(59)씨가 후진하던 쓰레기수거차에 치여 숨졌다.

연이어 발생한 환경미화원 사망사고의 원인은 열악한 작업 환경과 불안정한 안전장치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다.

이날 사고를 낸 쓰레기 수거차(5t)는 운전석에 차량 뒷면을 볼 수 있는 후방 카메라가 설치돼 있는데, 해당 카메라는 덮개

에 달려 있다. 운전기사가 수거한 쓰레기를 신기 위해 적재함 덮개를 열면 후방 카메라는 뒷면이 아닌 하늘을 촬영하게 되면서 사실상 무용지물이 된다.

열악한 처우와 부족한 인력난도 이들을 안전사고의 희생양으로 내몰고 있다.

생활쓰레기를 수거·운반하는 가정청소원들은 광산구를 제외하고 모두 협력업체 비정규직이다.

불안정한 고용 조건 탓에 업체의 지시를 곧이곧대로 따를 수밖에 없는 환경미화원들은 쓰레기 양이 갈수록 늘어나는데도, 인력은 부족해 늘 시간에 쫓기는 근무를 이어가고 있다.

주행 중인 쓰레기수거차 적재함에 쓰레기 봉투를 집어던지며 뒤쫓아가다 넘어지

거나 날카로운 도구에 찔려 다치는 일이 환경미화원들 사이에선 비일비재하다는 것이다.

쓰레기 수거차 운전기사 A씨는 “하루 평균 수거량은 8~9t인데, 많게는 17t 가량 수거한 날도 있다. 시간에 쫓길 수밖에 없다”며 “좁은 골목길에서는 불법 주정차된 차들 사이로 서둘러 운전하다 보면 차 뒤편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이 같은 안타까운 인명사고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선 환경미화원들의 처우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광주시와 각 구가 이번 사고와 관련, 타상행정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위한 안전사고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한편 서구는 쓰레기수거 대행업체 용역 계약을 맺으면서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계약’으로 인사 사고 땀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대행업체에 있다’는 항목을 계약서에 명시해 논란이 되고 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김한영기자 young@kwangju.co.kr

택시만 골라 상습절도한 전과자 2~3초만에 유리창 깨고 싹쓸이

택시 33대 피해~30대男 검거

공구를 이용해 불과 2~3초에 만에 유리창을 깨는 수법으로 택시 수십대를 탄 3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유리창을 파손하면 자동차 경보장치가 작동되지 않는 허점을 노린 수법이었다.

광주북부경찰은 “택시 유리창을 깨고 금품을 훔친 혐의(상습 절도 등)로 박모(38)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12일 밤 11시께 광주시 북구 문흥동 길가에 주차된 김모(60)씨의 영업용 택시 운전석 유리창을 깨고 현금, 블랙박스, 태블릿PC 등을 훔치는 등 지난 26일까지 택시 33대와 일반승용차 1대에서 268만원 상당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박씨는 광주 일대를 돌아다니며 택시 운전석 유리창 틈새로 공구를 집어넣은 후 젓혀 유리가 깨지면 몸을 비집고 들어가 물건을 훔쳤다.

폐소 택시에 현금을 보관했던 운전자들은 680만원 상당 차량 파손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택시에 현금을 보관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과 문이 열리지 않으면 차량 경보장치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고 택시를 상대로 유리창만 깬 것으로 드러났다. 유리창을 깨는 과정은 2~3초에 불과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절도 등 전과 15범으로 지난 8월 출소한 박씨가 가중처벌되는 중증 범죄를 저지른 점을 감안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여죄를 조사 중이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아이코스서도 1급 발암물질 검출”

스위스 연구원 분석결과 공개

전자담배 유해성 논란 확산

한국과 일본 등에서 선풍적 인기를 끌고 있는 전자담배 아이코스가 제조사의 주장보다는 더 많은 양의 유해물질을 배출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아이코스는 담뱃잎을 분쇄해 만든 시트를 낮은 온도로 썰서 증기를 내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전자담배다.

오는 30일 보건복지부가 주최하는 ‘담뱃갑 경고그림 시행 1주년 기념 담배규제 정책포럼’에 참가하는 스위스 산업보건연구소 오렐리 베르넷 연구원은 29일 ‘결련형 전자담배 유해성’ 발표문을 통해 아이코스 배출성분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아이코스 제조사는 필립모리스다. 연구결과, 아이코스에서는 국제암연구소 1군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와

벤조피렌이 검출됐고, 아크롤레인도 크로톤알데히드, 벤조안트라센 등의 유해물질도 검출됐다.

포름알데히드의 경우 아이코스에서 배출되는 양은 일반 결련 담배에서 배출되는 양의 74% 수준으로 제조사의 설명과는 배치됐다. 아크롤레인도 결련 대비 82% 배출됐다. 또 아이코스에서는 상당량의 일산화탄소가 검출됐고, 배출되는 니코틴 농도는 결련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베르넷 연구원은 “아이코스의 화합물 농도는 일반 결련 대비 상대적으로 낮지만 위험이 완벽히 제거된 것은 아니라는 다른 연구와 일맥상통하는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필립모리스 코리아는 “아이코스에 일부 유해물질이 존재한다는 것은 새로운 사실이 아니다”며 “중요한 점은 아이코스의 유해물질은 일반담배보다 상당히 적다는 점”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골프 부상 거짓말…보험금 탄 전 조폭, 골프 사진 올렸다 ‘들뚝’



○…“골프를 치다 허리를 빼앗겼다”며 한 병원에 허위로 입원해 보험금을 타낸 40대 전 조폭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려둔 사진 때문에 경찰에 달미.

○…29일 광주광산경찰에 따르면 김모(42)씨는 지난 5월4일부터 같은 달 17일까지 14일간 목포시의 한 한방병원에 허위 입원에 보험사에 병원 입·퇴원 서

류 등을 제출, 150만원 상당의 상해보험금을 받았다는 것.

○…폭력조직원이었던 김씨는 병원 입원 기간 중 페이스북에 친구와 술 마시고 골프를 치는 사진을 올려 보험사에 적발됐는데 경찰은 “병원에 입원할 정도의 상해가 아니었음에도 입원비 등을 받을 목적으로 입원했다”며 보험사기 혐의에 입건.

/김한영기자 young@kwangju.co.kr



**‘사랑의 김장’
담근 사람도
너무 행복해**

금호고속과 유스퀘어 임직원들이 29일 광주시 서구 유스퀘어 야외광장에서 사회복지시설과 소외 계층에 전달할 김장을 담그고 있다. 김장은 금호고속과 자매결연한 서구 쌍촌동복지관과 무의탁 독거노인, 장애우 가정에 전달된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살인죄 공소시효 없앤 ‘태완이법’ 첫 적용 확정판결

대법, 16년전 살인강도범 무기징역 선고

16년 전 단독주택에 침입해 대학교수 부인을 살해하고 달아났다가 뒤늦게 붙잡힌 50대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없앤 이른바 ‘태완이법’이 적용된 첫 확정판결 사례다.

대법원 3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8일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53)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위치주적 전자장치(전자발찌) 20년 부작명령도 그대로 유지됐다.

김씨는 2001년 6월 28일 새벽 A(당시 55세·대학교수)씨 부부가 사는 경기도 용인의 한 단독주택에 공범(52)과 함께 침입해 A씨 부인(당시 54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A씨에게 중상을 입힌 뒤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이 사건은 경찰이 범인 검거에 실패하면서 2007년 2월 미제사건으로 분류됐다. 이후 공범이 지난해 8월 가족에게 “15년 전 김씨와 남의 집에 들어가 흉기로 사람

을 찔렀다”고 털어놓고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김씨의 범행이 드러났다.

이 사건은 당초 범행 후 15년이 흐른 작년 6월 공소시효가 끝난 뻔한 사건이었다. 범행이 이뤄진 2001년 강도살인죄의 공소시효는 15년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15년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없애고 이를 예전 범죄에도 적용하는 ‘태완이법’이 시행되면서 김씨를 형사재판 범정에 세울 수 있었다. /연합뉴스

더불어 사는 삶을 위하여 !

**부동산 투자 !
최 선 규와 함께 하면 성공합니다 !**

오천경매 H. 010-3605-5000